

주제: 두 가지 할례의 의미

1. 첫 번째 할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할례: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나와 네 뒤에 올 네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 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아니,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창 17:9-14)

*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의 의미:

-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 할례받은 자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사흘이 소요되는 것은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

- 사내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포피를 베어낼 때에 이미 죽은 자들로 여겨진다는 상징적인 것. 또한 그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피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음.

-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구약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셨을 때 그들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됨.

2. 두 번째 할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할례는 육신 가운데 부분적인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육신의 몸을 통채로 베어내는 할례.

- 손에 칼을 잡고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로 베어내는 할례이며,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피를 흘리지 않고 받는 할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찢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히 4:12)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골 2:9-11)

-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의 칼로 혼을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할례..

- 다윗왕은 자신의 혼이 죄의 몸에 붙어있음으로 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게 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미래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례받을 것을 성령 안에서 미리 알고 증거함:

"내 혼이 진토에 붙어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시 119:25)